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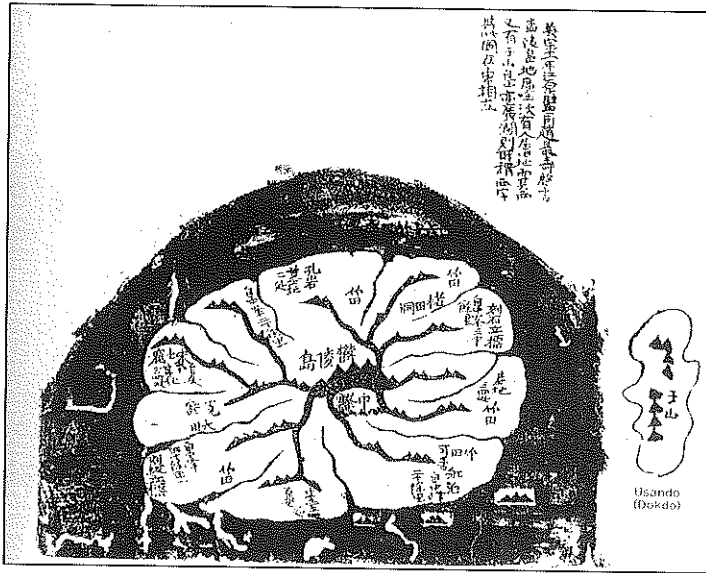
〈지도 1〉

로 둘러싼 지명으로 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각되는 것은, 신라시대에 울릉도에 우산국이 있었던 것(『삼국사기』(1145년 경) 신라본기 제4)이다. A형에 속하는 지도는, 팔경 울릉도 = 우산(국)을 전승의 혼란으로부터 두 섬으로 그린 것으로, 금일의 다케시마(독도)와는 관계가 없다. ... B형에 속하는 조선의 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울릉도에 부임했던 자의 지견(知見) - 동 섬의 동쪽 앞바다에 섬(竹島)이 있는 것 - 과, 전통적인 A형의 지식 - 우산도라고 하는 명칭 - 이 합해져서 그려진 것으로 해석되어, 이것도 또한 일한(日韓) 사이에 귀속을 다투고 있는 다케시마(독도)와는 관계가 없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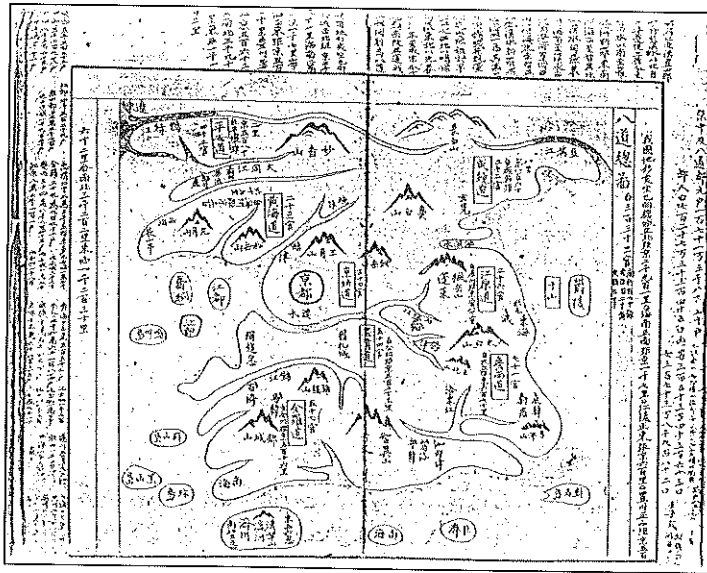
이러한 쓰카모도의 견해에는 일본 측이 한국의 고지도 분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결과가 무엇인가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곧 일본의 학자들은 고지도에 그려진 우산도가 독도라고 하는, 한

6) 塚本孝, 앞의 글, 100~104쪽.

8 :: 독도 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지도 2>



<지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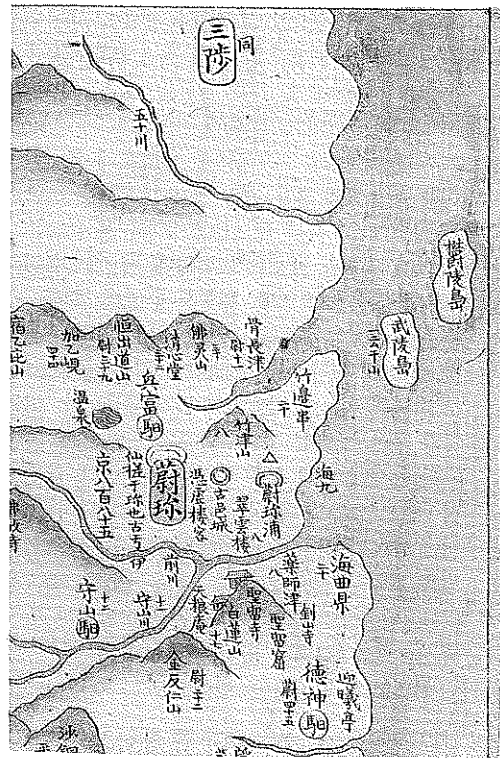
국 측의 주  
 되었다는  
 하는 데  
 있다는 것  
 서 쓰카모  
 그려진 우  
 의 이름이  
 산국이란  
 름이 잘못  
 혼란을 일  
 라고 강변  
 그리고 B형  
 지도에 그  
 도는 오늘  
 이므로, 독  
 관이 없다  
 바로 이와  
 카모도의  
 층 더 구체  
 북대학교  
 비고東興備  
 珍縣圖<지  
 그런데 이  
 지도책의  
 것으로 보  
 를 취하고,

국 측의 주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쓰카모도는 A형에 그려진 우산도는 섬의 이름이 아니라 우산국이란 나라의 이름이 잘못 전승되어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리고 B형에 속하는 지도에 그려진 우산도는 오늘날의 죽도이므로, 독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쓰카모도의 주장을 한

층 더 구체화한 것이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의 연구이다. 그는 경북대학교 출판부가 1998년에 석원진釋圓眞의 소장본을 영인한 『동여비고東輿備攷』의 「강원도 동서주군 총도江原道東西州郡總圖 - 울진현도蔚珍縣圖<지도 4>」를 무슨 대단한 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떠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지도의 제작 연대는 1682년(숙종 8)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지도책의 이름을 『동여비고』라고 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에서 따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동국東國의 <동東>자와 여지승람의 <여輿>자를 취하고, 비고備考라는 명칭은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데 참고



〈지도 4〉



〈지도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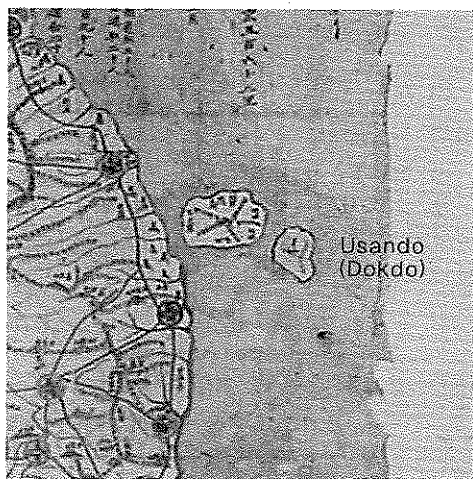
볼 수 있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안용복이 붙인 자산도고 하는 이름의 섬이, 그 후에 지도로 방각榜刻되어 간행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위에서 제시한 <지도 5>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과동에서 고서관古書館을 운영하는 김정원金正元이 제공한 것으로, 울릉도 아래쪽에 자산도가 방각되어 있다. 이런 지도가 존재했다는 것은 당시에 자산도라는 이름이 상당히 널리 통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울릉도 아래쪽에 그려진 자산도는 오늘날의 죽도가 아니라 독도가 분명



하다. 이렇게 말하면 독도를 왜 동남쪽에 그리지 않았느냐고 반문할 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천하도天下圖』를 제작할 때에는 한 장에 하나의 도道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강원도에 속하는 지역을 전부 한 면에 넣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육지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육지가 중시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바다 쪽이 경시되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위의 <지도 5>를 보면 그대로 드러난다. 곧 바다 쪽을 좁게 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울릉도의 동남쪽에 있는 자산도(독도)가 울릉도의 아래쪽에 그려졌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안용복은 “5월 15일 다케시마(竹嶋: 울릉도)를 출선하여 같은 날 마쓰시마(松嶋: 독도)에 도착하였고, 동 16일 마쓰시마를 나서서 ... 다케시마와 조선 사이는 30리이고,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사이는 50리입니다.”<sup>17)</sup>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진술은 상당히 정확한 지리적 인식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자산도가 울릉도 아래에 표시되었다고 해서 자산도, 곧 우산도에 대한 지리적 지식이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지도 6〉

17) 「五月十五日竹嶋出船 同日松嶋江着 同十六日松嶋ヲ出...竹嶋と朝鮮之間三十里 竹嶋と松嶋之間五十里在之由申候。」  
김정원 역, 앞의 글, 293~294쪽.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사실 후나스기가 한국의 많은 고지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울릉도의 남쪽이나 동남쪽에 그려진 우산도 문제를 고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저의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지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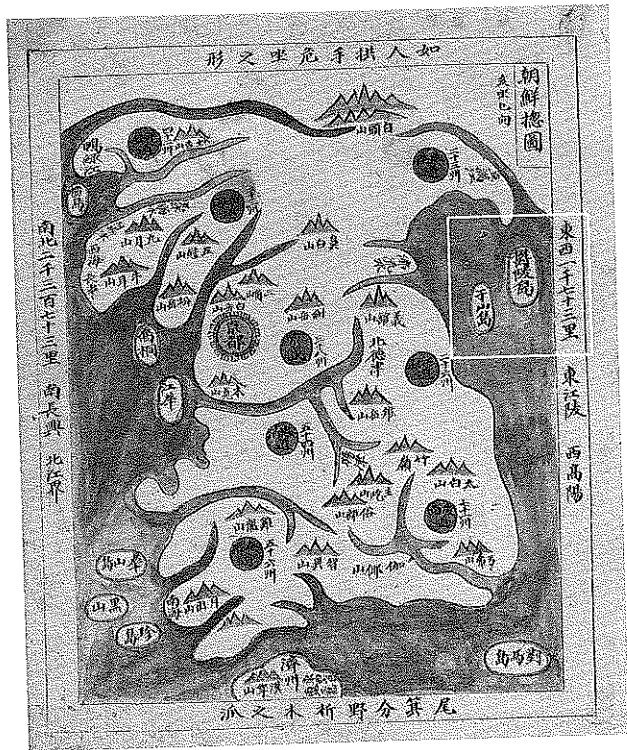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도에 섬을 그리거나 방각할 때에 거리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시한 『천하도』 계열의 지도들 가운데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를 간성杆城에서 정선旌善 정도의 거리로 표시하여 실제의 거리를 의식한 것 같은 지도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지도 7>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것은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작자는 알 수 없지만 1870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이상태의 설명에 의하면, 「동람도 東覽圖」식의 채색 필사본 지도로 민간에서 많이 소장했다는 것이다.<sup>22)</sup>

22) 이상태, 강원도 『여지도輿地圖』, 앞의 책,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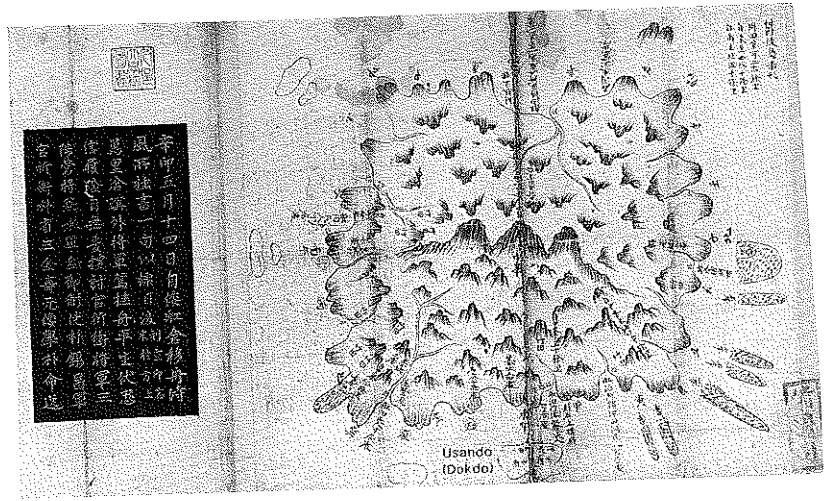






〈지도 9〉





〈지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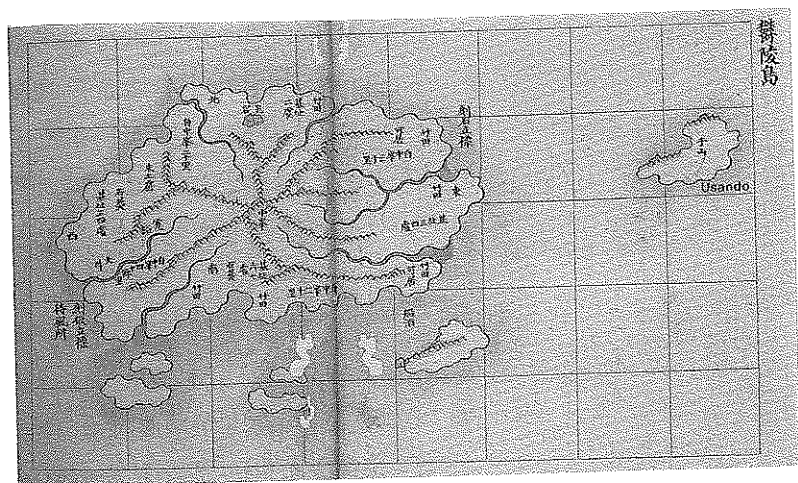
그러나 고지도, 특히 울릉도 지도鬱陵島地圖에 그려진 우산도의 경우는 <소위 우산도 형>과 <우산도 형>이 있다는 사실에 유념하여야 한다. 먼저 후나스기가 각종 울릉도 지도에 관한 고찰을 하는 과정에서 <소위 우산도 형>에 속하는 자료들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유형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지도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울릉도 도형鬱陵島圖形」(〈지도 10〉)이 있다.

여기에는 “신묘년 5월 14일에 왜의 강창紅倉(배를 넣어두던 창고)으로부터 바람을 피하는 곳으로 배를 옮겨, 한 구절을 써서 날짜를 표시한 다음에, (나무에 새겨 표방(卯方: 동쪽 방향)의 바위 위에 세웠다) ‘만 리 창해滄海 바깥에 장군으로 계수나무로 만든 아름다운 배를 타고 평생토록 충성과 신의忠信을 다했으니 험난함을 겪어도 걱정이 없노라. 수토관 절충장군 삼척영장 겸 수군첨절제사 박석창 군관절충 박성삼 김수원, 왜학 박명일”<sup>26)</sup>이라는 글귀가 있고, 또 울릉도에 박석창이 세운 비석이

26) 「辛卯五月十四日 自倭紅倉移舟待風所 拙書一句以標日後 (刻木立於卯方岩





〈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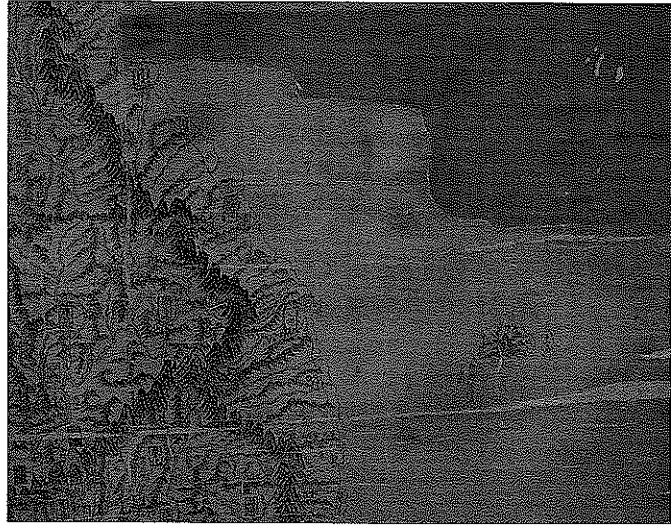
다.”<sup>34)</sup>라고 하여, 역시 죽도로 비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의 추정은 이상한 계산법을 동원한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의 회도에 없었던 방안선方眼線이 그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회도의 주기註記에는 섬의 동서는 약 80여리, 남북은 약 50여리라고 하고 있다. 방안은 20리(8Km)에 그어져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회도에서는 동서는 약 90리, 남북은 약 60리가 되어, 수치는 가깝다고 할 수 있다.”<sup>35)</sup>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울릉도와 우산도와의 거리를 12Km로 본 것은 지도상의 거리를 가능한 한 가깝게 기술하려고 하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방안이 8Km라면 울릉도의 동쪽 14Km 정도의 거리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18세기에 그려진 이 지도를 가지고 현재의 측정 거리인 90Km가 되지 않으므로 이 섬이 죽도라고 하는 것은 우산도는 무조건 죽도가 되어야 한다는, 미리 정해놓은 결론을 이끌어

34) 船杉力修, 앞의 글, 113쪽.

35) 船杉力修, 앞의 글, 113쪽.





〈그림 13〉

였다. 그  
지금까지  
50여리라  
으므로, 회  
가깝다고  
의 거리를  
하려고 하  
는 방안이  
고려져 있다  
고 현재의  
는 것은 우  
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당시에 이 정도의 거리에 표시한 우산도라면, 그것은 독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6)</sup> 실제로 정상기鄭尙驥가 『동국대전도東國大全圖』를 제작하고 난 다음부터 울릉도 동쪽에 우산도가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세부도細部圖(<지도 13>)를 제시하기로 한다.

이 지도에 대해, 오상학吳相學은 “지도 세부도(<지도 13>)를 보면 울진의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동랍도』 계열의 지도와는 다르게 울릉도가 크게 그려져 있고 그 동쪽에 우산도가 훨씬 작게 그려져 있다. 『동랍도』에서처럼 울릉도와 우산도가 거의 동

36) 오상학도 이 섬을 “울릉도 근처의 부속도서와는 다른 별개의 섬인 독도를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오상학, 『조선시대 지도에 표현된 울릉도·독도 인식』, 『가 보고 싶은 우리 땅 독도』, 국립중앙박물관, 2006, 202쪽.





〈그림 14〉

스기 리키노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울릉도 동쪽에 그려진 우산도가 전부 죽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산도”라고 한 것은 죽도를 나타내고 “우산도”라고 한 것은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 5. 맺음말

본 논고는 후나스기 리키노부가 독도와 관련된 한국 고지도들의 왜곡된 해석의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그는 한국의 고지도들 가운데에서 울릉도의 서쪽과 동